

비대면 시대의 사찰 신도조직 활성화

조진영(묘광)*

• 목 차 •

- I. 서언
- II. 신도조직의 개념과 변화
 - 1. 신도조직의 기원과 변천
 - 2. 신도조직의 현대적 정의와 특징
- III. 현재의 모범적인 사찰 신도조직의 활동 양태
 - 1. 현대적인 신도조직화 사례
 - 2. 비대면시대의 실행활동 변화
- IV. 비대면 시대의 신도조직 활성화 방안
 - 1. 사찰의 포교환경 변화
 - 2. 비대면 사이버 신도조직화 방안
- V. 결어

* 대한불교조계종 중화사.

© 『大覺思想』 제36집 (2021년 12월), pp.291-318.

한글요약

현대사회는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 인지과학 등의 융합기술로 발전으로 인해 사회구조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비대면 접촉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비대면 시대의 불교계는 신도 고령화와 농경사회의 전통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각 사찰들은 사이버 포교 방법 개발로 비대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비대면 포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포교 인프라와 조직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이버 포교사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대면 일상화에 대응하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신행 방법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

불교 단체들 중에서는 온라인상의 불교공동체를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찰들은 인력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0~3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려면 사이버 포교 활동이 필수적이다. 불교는 온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익되고, 발전하고, 행복해지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주제어

불교, 코로나19, 비대면, 사찰, 사이버, 신도조직

I. 서언

현대사회는 초고속(超高速), 초연결(超連結), 초지연(超遲延)¹⁾ 등을 구현하는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시사경제용어 사전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물리, 디지털, 그리고 생물 세계 등이 융합되어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산업시대”로 설명하고 있다. 이 용어는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시되었는데 이때는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 인지과학 등의 융합기술로 발전하고 이로 인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생산을 주도하는 사회구조의 대변혁”을 의미하였다. 이때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슈밥(K.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 일부만이 아니라, 산업 시스템 전반, 생산, 권리, 거버넌스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며,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마저 바꾸어 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로봇은 이미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병원에서 간병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로봇이 공장에서 생산에 투입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여기에 인공지능이 추가되면서 이제 인간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바둑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프로그래머들을 연파했다. 이러한 기술들과 더불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SNS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종교 역할의 본질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심지어 인간의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고, 인간과 포스트휴먼 간의 갈등을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다.³⁾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내부에 이식된 컴퓨

1) 4차 산업혁명은 초고속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초연결, 그리고 정보전달 시간을 최소화하고 동시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초지연 연 기술 등이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2)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What It means and How to Respond*, *Foreign Affairs*, 2015;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York, Crown Business, 2017.

3) 이창익,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종교, 인공지능, 포스트유머니즘」, 『종교 문화비평』 31, 2017, pp.30-33.

터 칩을 통해 의식과 신체적 기능 등이 조정되고 물리적 기반을 바꾸며 생물학적 수명을 넘어서는 사이보그형 인간을 의미한다. 포스트휴먼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Homo Deus)’ 즉, 신이 된 인간이라고 표현하였다.⁴⁾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과의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비대면 접촉이 일상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은 종교인들의 전통적 집회를 못하게 만들었으며, 종교적 메시지 전달 방법을 방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영상 자료, 음성자료, 문자자료 등의 형태로 빠르게 전환시켰다. SNS 소통 시스템이 보편화 되면서 종교적 메시지가 비대면적으로 전달되고 확산되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불교계 사찰의 신도조직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대면적 일상이 지속되면서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찰에서 핵심신도를 조직화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도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들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초고속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감염병의 팬데믹 현상이 겹치면서 종교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종교활동이 위축됨으로써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감성적 종교성이 이성적으로 바뀌면서 종교적 현상에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비대면 접촉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사찰의 신도조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⁵⁾

4) 유발 하라리 저, 김명주 역, 『호모 데우스』, 김영사, 2017, p.517-519.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데이터교라는 새로운 종교적 개념을 제시하면서 “데이터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좋은 단일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고, 개인은 시스템을 이루는 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 신도조직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은 1994년 조계종단의 개혁 이후 포교원이 별원화되고, 중앙신도회가 새롭게 결성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신도조직과 관련된 연구는 김응철, 「寺刹 信徒의 組織化 方案 研究」, 『중앙승가대학교 論文集』 8, 1999, pp.285-311.; 박용규, 「직장·직능 신행단체의 현황과 과제」, 『불교평론』 제4권 제4호 통권 제13호, 불교평론사, 2002, pp.329-341.; 고명석, 「신도교육과 신도조직 관리의 효율적 방안」, 『禪文化研究』 제7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09, pp.1-44 등에

II. 신도조직의 개념과 변화

1. 신도조직의 기원과 변천

불교에서 신도조직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신행결사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석존 재세시의 초기불교 시기에는 출가 승려 중심의 수행조직은 형성되었으나 재가불자는 조직화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승가조직이 석가족의 사회조직을 응용하였기 때문에 석가족 중심으로 재가조직의 원형은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양국따라니까야』 제2권 모임의 품(Parisavagga)에서는 대중(大衆, paris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이 현대적인 신도조직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모임의 품에서는 “천박한 모임과 진중한 모임, 불화합의 모임과 화합의 모임, 비속한 모임과 수승한 모임, 비천한 모임과 고귀한 모임, 찌꺼기와 같은 모임과 제호와 같은 모임, 미사여구에 이끌리고 반대 질문에 혼란되지 못한 모임과 반대 질문에 혼란되고 미사여구에 이끌리지 않는 모임, 재물을 중시하고 정법을 중시하지 않는 모임과 정법을 중시하고 재물을 중시하지 않는 모임, 샷된 모임과 바른 모임,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모임과 가르침을 따르는 모임, 여법하지 않게 논의하는 모임과 여법하게 논의하는 모임” 등 열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모임에는 지도자와 대중이 있고, 친소관계 등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직화 된 모습을 띠게 된다.⁶⁾

『양국따라니까야』 제8권 모임의 경(A8:69)에서는 여덟 종류의 모임을 설하고 있다. 여덟 종류는 “왕족들의 모임, 바라문들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 수행자들의 모임, 네 위대한 왕의 천상계 신들의 모임, 서른셋 천상세계 신들의 모임, 악마들의 모임, 천신들의 모임” 등이다.⁷⁾

여기서 불교와 관련된 모임은 장자들의 모임과 수행자들의 모임에 해당한다. 장자들의 모임은 불교에 귀의한 장자들이 조직한 모임으로 재가불자의 모임에

불과한 실정이다.

6) 『양국따라니까야』 제2권 둘 모아모음, 「5. 모임의 품」; 전재성 역주, 『양국따라니까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8, pp.249-255.

7) 위의 책, pp.1773-1775.

해당하며, 수행자들의 모임은 출가자들의 모임으로 볼 수 있다. 장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부처님은 “법문으로 교화하고 복돋우고 고무시키고 기쁘게 했으나 그들은 내가 말한 때에 알지 못했고, 거기서 말하는 자는 누구일까 신인가 사람인가라고 생각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⁸⁾ 이러한 언급으로 본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조직화 된 장자(長者)⁹⁾들인 재가불자의 모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반인들의 모임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당시 인도사회에서 장자는 상업과 관계된 특정한 집단으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조직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도조직이 체계화된 불교사회조직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인도의 아쇼카 대왕 때로 볼 수 있다. 아쇼카(B.C. 273~232 재위)는 기원전 262년에 불교에 귀의한 후 평화적인 ‘다르마에 의한 정복’을 표방하고, 불교 기반의 통치를 시행하였다. 아쇼카의 칙령은 인도 전국의 수많은 석주에 새겨졌으며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우물을 파고 가로수를 심고 휴게소와 진료소를 짓는 등 적극적인 자선활동과 공공사업을 시행했다.¹⁰⁾

아쇼카는 불법(佛法)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실천되는지를 감독하기 위해 아홉 가지의 관련 직종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법에 헌신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된 직종은 수행자, 노인, 빈곤자, 포로 등을 보살피는 책임을 맡은 법대관(法大官, dharmamahāmātra), 대관(大官, mahāmātra), 지방관, 감독관, 순찰관 등의 제도를 도입했다.¹¹⁾ 이와 같은 마가다국의 행정제도는 중앙집권 하에서 지역별 조직으로 확산되었다.

대승불교에서 보살행이 강조되면서 존경할만한 대보살들이 등장하였고, 자연스럽게 이들의 지도력을 따르는 재가불자 조직이 형성되었다. 독송자이면서 법사로 불리는 다르마바나까(dharma-bhanaka)의 등장은 재가불자의 역할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불탑신앙의 확산,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오종법사의

8) 위의 책, pp.1773-1774.

9) 이 당시의 장자는 대부분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재산이 많고, 많은 상인들이 거느린 부유한 계층에 속한다.

10) 일야 지음, 『아쇼카』, 민족사, 2009, pp.286-289.

11) 에띠엔 아모프 지음, 호진 옮김, 『인도불교사1』, 시공사, 1988, pp.450-451.

등장은 대승불교의 지도자로서 재가불자가 활동하였음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추종자들이 생겨나면서 신도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 되었다. 『법화경』에서 다양한 보살이 등장하고, 재가불자들이 수기를 받으며, 법사로 활동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¹²⁾은 재가불자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불교교단 초기에 우바새 및 우바이로서 활동하는 재가불자들이 대승불교가 정착되면서 보살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갖게 되면서 조직화 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가자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재가보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재가불자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는 『유마경』과 『승만경』 등과 같이 재가불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승경전의 결집으로 나타났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재가불자의 모델이며 이상적 지도자의 모습이며, 중생을 이끄는 스승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경전에서는 부처님으로부터 재가불자 중에서 보시제일이라고 인정을 받은 수단따가 유마거사로부터 재화를 보시하는 모임을 지양하고 법을 보시하는 모임을 운영하라는 가르침을 들은 내용이 있다. 여기서 법을 보시하는 모임이란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시키는 일’이라고 하였다.¹³⁾

『승만경』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승만부인이 우칭왕(友稱王)에게 대승의 찬탄하고, 성안의 일곱 살 이상의 여인들을 대승으로 교화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우칭왕도 성안의 일곱 살 이상의 모든 남자를 대승으로 교화하여 온 나라의 모든 국민이 대승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¹⁴⁾

장자인 유마거사나 왕족인 승만 부인은 모두 재가불자로서 많은 사람을 교화하였다. 장자는 상인이면서 대부호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휘하에 재가불자 조직을 형성하는데 요이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왕족인 승만 부인은 왕과 함께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장자나 왕족 등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은 자연스럽게 추종자들을 형성하게 되고, 조직화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처음에는 사족불교(士族佛敎)가 형성되었고, 이후에

12) 이운허 옮김, 『묘법연화경』, 동국역경원, 2015, pp.203-214.

13) 불전간행회 편, 박용길 옮김, 『유마경』, 민족사, 2013, pp.80-85.

14) 불전간행회 편, 전해주·김호성 역, 『승만경·원각경』, 민족사, 2013.

민중불교(民衆佛敎)의 형태로 사회적 확산이 나타났다. 사족(士族)은 중국사회에서 지배층의 관료로 나아갈 수 있고, 많은 재산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류층의 집안을 말한다.¹⁵⁾ 사족불교가 확산되면서 왕실에서 불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중국 당대에 불교는 국가 종교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사족들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사원을 건립하고 일부가 출가하면서 승려로서 전법교화에 앞장섰다. 따라서 사족불교는 자연스럽게 사찰불교로 전환되고 수행자 중심의 조직체로 발전하였다.

사족불교에서 배출된 출가자들은 결사체를 만들고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사족불교는 귀족불교, 왕실불교로 전환되면서 일반 민중과는 괴리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대응하여 등장한 불교 조직이 민중불교를 표방하는 새로운 결사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던 민중들은 지도자를 정하고 결사조직을 만들면서 자활자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민중불교 결사체는 인도에서 전해진 전통불교와는 궤를 달리하는 족적을 남겼다.

사족불교가 국가불교화 되는 과정에서 왕권(王權)과 불법(佛法)의 충돌 현상이 나타났다. 출가사문이 왕에게 예경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국가 권력의 불교 지배를 용인하는 것이기에 이에 반발하는 승니(僧尼)들이 독자적인 결사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결사체가 동진시대의 혜원(慧遠)의 여산(廬山)에서의 백련염불결사라 할 수 있다. 혜원은 스승 도안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염불수행에 전념하였는데 이때 다수의 출가자와 재가불자들이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¹⁶⁾

당대에 이르러 왕권에 의한 불교 교단 통제가 심화되면서 국가가 건립한 국분사(國分寺)는 이를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당대 측전무후(624~705)에 의해 설립된 대표적인 국분사 형태의 사찰이 대운사(大雲寺)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청명염불과 같이 매우 쉽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민중적인 신행활동이 자리 잡으면서 재가불교 신행단체들도 형성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조직으로 북위부터 수당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읍(義邑)과 읍회(邑會) 등이 형성되었다. 이는 마을 단위로 염불결사에 동참하는 신도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⁷⁾ 정토사상과 청

15) 에릭 쥐르허 저, 최연식 역, 『불교의 중국 정복』, 시아이알, 2010, pp.8-10.

16) 窪徳忠·西順藏 엮음, 조성을 옮김, 『중국불교사』, 한울 아카데미, 1996, pp.86-87.

명염불은 민중불교 발전을 촉진 시켰고, 중국 각 지역에서 이에 동참하는 불자들이 지역 단위로 결사체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재가불자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¹⁸⁾

이러한 전통이 더욱 조직화 된 것이 삼계교(三階敎)이다. 삼계교는 중국 당대 측진무후(測天武后, 524-705)의 통치기에 형성되었으나 여래장 사상에 기반한 보경보불(普敬普佛)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말법탁세에 태어난 죄악이 많은 범부가 구제받을 수 있는 실천불교를 주장하며 무진장원(無盡藏院) 활동을 전개했으나 기존의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받아들여져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일체의 사람들을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주장은 당시 신분사회 질서를 해치는 세력으로 낙인 찍혔으며 탄압의 원인이 되었다.¹⁹⁾

그러나 무진장원 활동은 재가불자들이 마을 단위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재가불자 조직으로 형성될 수 있었고, 각종 보(寶)를 중심으로 하는 기금(基金)을 형성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봉사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삼계교의 시작은 일부 수행자들의 지도로 이루어졌으나 민중불교에서는 재가불자 중심의 신도조직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중국문화의 전통은 한반도로도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거점 사찰을 중심으로 신도조직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대부분의 신도조직은 사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마을에서 사찰을 건립하고 신도들이 외호 함으로써 조직화 되는 경향을 띠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전통은 현재 제주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을별로 사찰을 건립하고 마을 사람들은 원찰로 정하여 대를 이어서 신행활동을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신도가 되어 서로 상부상조하는 조직문화가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

2. 신도조직의 현대적 정의와 특징

17) 위의 책, pp.114-116.

18) 이와 관련된 자료는 둔황 석실고분에서 발견된 사읍(社邑)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읍의 조직, 운영, 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농민, 공인, 상인 등 민중들이 불교를 수용하고, 범회를 열고 스님들을 초청해 범문을 듣는 불사에 조직적으로 동참했다. 위의 책, p.115.

19) 鎌田茂雄 著, 鄭舜日 譯, 『中國佛敎史』, 경서원, 1989, pp.175-178.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신도는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삼보를 호지하며, 본종의 종지를 신수 봉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²⁰⁾ 그런데 여기서 한자어 신도(信徒)라는 개념에는 이미 조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도(徒)’에 모임, 무리, 동아리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도는 ‘신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조직(組織)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일정한 의사소통 방식의 체계와 역할, 위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도조직은 단순히 신도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아니라 일정한 역할이 주어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²¹⁾

현재 우리나라 불교계의 각 사찰에서 운영되는 신도조직은 신행결사체의 한 형태로 운영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신행활동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삼보를 외호하며, 지역사회에서 상호부조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직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인 신행결사 조직은 현재에도 매년 사찰에서 봉행하는 하안거 결사 때에 입재와 회향이 이루어지 있다. 그렇지만 도심포교 활동이 활발한 사찰에서는 신도교육과 조직화, 그리고 봉사활동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김응철(1999)은 신도조직화의 과정에서 자율적 참여 조직, 합의제 조직, 직능과 지역 조직, 신행활동 조직, 소규모 팀 조직 등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²²⁾ 그리고 사찰에서의 신도조직은 기능별로 포교조직, 교육조직, 신행조직, 봉사조직, 문화조직, 상례조직 등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²³⁾

그렇지만 비대면 시대의 신도조직은 전통적인 신행활동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대면적 접촉이 중심이 되었던 전통적 신도조직은 비대면 시대의 접촉 방식의 변화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대면 시대의 신도조직은 신도회의 구성, 운영 및 관리방법, 신행활동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먼저 신도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대면 시대의 신도조직은 특정한 지역사회 중

20) 대한불교조계종 신도법, 제2조, 『종단법령집』,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2004, p.543.

21) 김응철, 「사찰신도의 조직화 방안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논문집』 8, 1999, pp.289-290.

22) 김응철, 앞의 논문, pp.304-308.

23) 위의 논문, pp.309-310.

심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비대면 시대에 이르러 각종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발달하면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조직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루만(Luhmann)은 정보사회가 등장하기 시작할 무렵 그 특징을 ‘의사소통적 시스템(communicative system)’으로 보았다. 루만이 제시한 의사소통적 시스템은 언어, 출판, 상징코드 등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처리 하는데 있어서 기능적 분화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종교는 신앙을 상징코드로 하는 사회의 하위 시스템으로 정착한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²⁴⁾

비대면 시대에 이르러 종교계는 사회구성원들의 신앙적 욕구를 정보화하고 이를 자극할수 있는 방법으로 자생성(auto-poiesis)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종교조직은 내부 구성원들이 자신의 신앙을 통해 소통하게 하고 끊임없이 사회구성원들과 접촉하게 함으로써 유기적으로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 종교조직이 성직자와 평신도로 이어지는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면 비대면 시대의 종교조직은 수평적이면서 다기능적 의사소통 구조를 띠기 시작했다. 존 카스티(John L. Casti)는 이를 ‘종교조직의 복잡화(complexification)’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⁵⁾ 종교조직은 사회환경 및 과학기술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세분화하면서 동시에 종교적 담론을 만들어 내고 이를 구성원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종교조직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신참확보를 위한 포교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잡성을 시스템적으로 수용한 종교조직은 구조적 폐쇄성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비대면 환경하에서 종교단체 들은 다양한 메시지를 생성하고 이를 유통시키기 위해 경쟁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반인들이나 신도들은 특정 종교의 메시지에 얽매이기 보다는 다른 종교단체의 메시지와 그것을 송출하는 성직자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종교인들은 자신이 신념체계를 넘어서서 다른 종교적 메시지와 활동을 검색하고 비교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24) Luhmann, Social Systems, trans, John Bednarz, Jr. & Dick Baecker(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1995), pp.10-13.

25) 존 카스티 저, 김동광·손영란 공역, 『복잡성 과학이란 무엇인가』, 까치, 1997, pp.15-25.

또한 비대면 시대의 정보망은 종교조직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직자의 종교적 메시지와 담론들이 문자와 언어를 넘어서서 영상으로 지구촌 전체에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 종교적 메시지는 경전을 중심으로 한 문자로 표현되었으나 곧 감정이 표현되는 언어로 전파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문자와 언어, 그리고 성직자의 표정과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영상으로 전달되고 소비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교리에 대한 일방적 주장과 강요적 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종교인들은 내적 경험과 새로운 자각이 가능해졌다. 불교에서는 이를 깨달음과 체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틸리히는 이러한 현상을 상호주체적인 의사소통적 사건(intersubjective communicative event)으로 표현한 바 있다.²⁶⁾

현대의 고도 정보사회에 이르러 종교는 관념적 소망에 머물지 않고, 실제적 체험으로 그 목적이 변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 체험은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과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공감과 담론으로 공유될 수 있게 되었다. 비대면 시대의 도래는 종교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종교에 머물지 않고 타종교 시스템들과의 끊임없는 교류 확산을 촉진 시켰다. 이로 인해 종교인들은 기존의 신념체계를 유지하거나 넘어설 수 있으며, 다른 신념체계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계는 신행활동의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데 소극적이다. 그 배경에는 출가주의와 재가불자 사이의 불교적 담론이 형성되지 않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의 방법은 초고속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으나, 소통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복잡성의 소통체계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도 있다.

불교계에서 활동하는 신도조직은 사찰별로 조직화의 방법, 목적, 구성원의 특징 등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측면이 있다. 사찰의 경우에도 공사찰과 사설사암, 교구본사와 단위사찰, 산내 암자 등의 특성에 따라서 각자 다른 형태의 조직운영 원리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신도회칙의 표준안을 제시하고, 각 사찰별로 신도조직의 역할과 방법 등에 대해서 일정한 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 수행자인 스님들과 재가불자들 사이의 의사소통 및 조직체계는 전

26) Tillich, Systemic Theology, Vol.1(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51), p.108.

통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Ⅲ. 현재의 모범적인 사찰 신도조직의 활동 양태

1. 현대적인 신도조직화 사례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에서는 신도조직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전통사찰은 대부분 교구 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거나 산중사찰, 산내암자 등이 많기 때문이다. 교구본사 중에서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본사는 신도교육과 조직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도심에 있는 사찰들의 경우 생존을 위해서는 교육과 조직화, 그리고 포교활동에 적극적이다. 도심에 위치한 사찰들 중에서 신도조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서울의 조계사와 봉은사, 대구의 대관음사, 그리고 안양 한마음 선원 등이 있다. 능인선원, 불광사 등도 신도교육과 조직화를 통한 포교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내부 문제 등으로 인해 다소 위축되고 있는 분석에서 실정이라 제외했다.

조계사는 직할교구 본사이면서 대한불교조계종을 대표하는 사찰이고, 서울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교육과 조직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봉은사는 조계종단의 특별분담사찰로 지적되어 있으며, 서울 강남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격을 갖춘 사찰이다. 대구 대관음사는 신흥 도심사찰로서 5만여 명이 넘는 신도들이 운집하면서 어린이집, 유치원, 참좋은 중고등학교, 노인 요양병원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은 전국과 해외에 20여개의 지원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포교성과를 거둔 사찰이다.

대만의 자제공덕회는 증엄스님이 이끄는 세계적인 국제구호단체이면서 동시에 광범위한 신도조직을 운영하는 조직이다. 또한 우리나라 도심 포교사찰들이 자체정사와 교류하면서 장점을 배워온 사찰이기도 하다. 대만의 불광산사는 세계 각국에 많은 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조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들 도심포교 사찰의 신도조직을 분석해 본 결과 범회조직과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온라인 조직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은사의 법회조직은 정기법회와 특별법회, 그리고 계층법회와 불교대학 교육 법회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지역조직은 신도회 산하 9개 봉은조직과 봉은 산하의 90개 연등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법회는 7개 연등조직이 운영 중이다.²⁷⁾

조계사의 법회조직은 정기법회와 계층법회 등을 중심으로 법회조직과 계층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 조직은 5개 지역 32개 구역 법회가 활동 중이며, 교육 등 6개 본부조직 산하 187개 봉사팀이 운영 중이다.²⁸⁾

대관음사의 신도조직은 불교대학 중심으로 기별, 구역별 산하의 관음 조직이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7개 도량, 해외 3개 도량의 신도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대관음사의 계층법회는 어린이,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 청년, 합창단, 53선지식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법회로 금강경독송회, 다라니기도회, 자비도량참법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²⁹⁾

한마음선원의 신도조직은 범형제 신행회 22개, 지역 신행회 7개조 39개 지역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국내 15개 지원, 해외 5개국 10개지원에 신도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각 신행조직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법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기에 직능조직이 포함되어 있다.³⁰⁾

27) 봉은사홈페이지(www.bongeunsa.org) 자료 참조.

28) 조계사홈페이지(www.jogyesa.kr) 자료 참조.

29) 대관음사홈페이지(www.tvbuddha.kr) 자료 참조.

30) 한마음선원홈페이지(www.hanmaum.org) 자료 참조.

< 표1 > 주요 사찰의 신도조직 구성³¹⁾

사찰명	지역조직	법회조직	온라인 조직
봉은사	지역법회 7개 연등조직 신도회 산하 9개 봉은, 90개 연등조직	정기법회, 특별법회 등 계층법회 - 어린이, 파라 미타, 대학생, 청년회 불교대학 교육법회	홍보미디어 담당 법회 동영상, 교육동 영상
조계사	5개 지역, 32개 구역 법 회 교육, 수행, 포교, 사회, 소임, 문화 6개 본부 187개 팀 봉사조직	정기법회, 계층법회 - 유아, 어린이, 중고생, 청소년, 부모님	미디어 조계사
대관음 사	불교대학 기, 구역, 관 음 조직 국내 7개 도량, 해외 3 개 도량	계층법회 - 어린이, 중등 부, 고등부, 대학생, 청년, 합창단, 53선지식 등 특별법회 - 금강경독송회, 다라니기도회, 자비도량 참법 등	미디어센터 : 53선지 식 방송, 불교TV 강 의, BBS라디오 강의 등 유튜브 불교대학
한마음 선원	법형제 신행회 22개, 지 역 신행회 7개조 39개 지역 국내 15개 지원, 해외 5 개국 10개 지원	일반법회 - 정기법회 /청 년회, 학생회, 어린이회, 한마음봉사단 등 지역법회 - 법형제회 및 지역신행회 법회 월 1회 합창단 및 풍물패	한마음자료실, 출판 부, 뉴미디어실, 편집 실 등

대만의 신흥시대 중문 중의 하나인 불광산사는 1967년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성운(星雲) 대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이다. 불광산사의 신도조직은 국제불광회, 불광청년단 등에서 활동하는 신도(信徒), 회원(會員), 호법(護法), 공덕주(功德主)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재가불자들 가운데 정견을 지닌 사람들을 선발하여 단교사(檀敎士), 단강사(檀講士)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불광청년단은 불광산사가 지향하는 문화, 교육, 자선, 수행 등의 부문에서 국제, 봉사, 인문, 신앙 등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든 청년조직이다. 국제불광회는 어린이, 청년, 성년을 망라하는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조직으로 보살행화(菩薩行化)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불광회 회원들은 세계인들에게 신심, 희망, 기쁨, 방편을 주는 역할을 한다. 불광산사 신도조직은 인간불교의 실천을 통해 인

31) 각 사찰 홈페이지 자료 취합.

간정도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³²⁾

대만의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는 1966년 비구니 증엄스님에 의해 창건된 국제구호단체이며 자제정사와 자제공덕기금회 등의 조직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³³⁾ 자원봉사와 후원을 전담하는 자제공덕회는 자제위원(慈濟委員)과 자제회원(慈濟會員)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자제회원은 기금회(基金會)에 소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정해진 신분 사항을 밝히면 가입이 가능하다. 자제회원은 전세계에 약 700만 명 정도 되는 것을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자제회원들 중에서 자제위원을 선발하는데 이들은 2년간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40가정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면 위원이 될 수 있다. 자제위원은 핵심 포교사로서 회원을 지도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며, 자원봉사와 국제구호의 선봉장으로 활동한다.³⁴⁾

자제공덕회의 자제위원은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력(協力) 조직이 되고, 10개의 협력대가 모여서 호애(互愛) 조직을 결성한다. 그리고 지역 단위로 화기(和氣) 조직이 결성되면 전국 조직인 합심(合心)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이 자제공덕회의 조직체계라 할 수 있다.³⁵⁾

대만 불광산사와 자제공덕회는 성격은 다르지만 전 세계 약 170개 이상의 국가에 지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불광산사 분원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자제공덕회 지회도 운영되고 있다. 이 사찰들은 세계 각국의 회원들을 위한 교육과 봉사 등을 촉진 시키기 위해 위성으로 송출되는 방송국³⁶⁾을 운영중에 있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각종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32) 박인석, 「대만 사찰의 신도조직체계와 재가자의 위상과 역할」, 『대만불교의 5가지 성공코드』, 불광출판사, 2012, pp.257-263.

33) 자제공덕회는 사대지업(四大志業), 팔대법인(八大法印)을 실천하고 있다. 사대지업은 자선, 의료, 교육, 인문 등의 활동 영역이고, 팔대법인은 사대지업과 함께 국제구호, 골수기증, 환경보호, 지역봉사 등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자제종 자제기금회 홈페이지(<https://www.tzuchi.or.kr>) 자료 참조.

34) 김응철, 「세계적인 불교 자원봉사 신도조직 대만 자제공덕회」, 『불교와 문화』, 제44호, 2002, pp.62-71.

35) 박인석, 앞의 책, pp.264-268.

36) 자제공덕회에서 운영하는 불교방송국 大愛TV는 1985년 설립되었으며, 대만 전역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종합방송국이며, 공익 재난방송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비대면시대의 실행활동 변화

앞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의 대표적인 신도조직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 사찰의 신도조직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는 대면접촉을 중심으로 사찰을 운영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각 사찰들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사찰을 홍보하고, 온라인으로 입문자의 접수를 용의하게 하고, 신도교육 관련 영상을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도조직 운영방식으로는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비대면을 통한 신도조직과 실행활동, 신도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신도조직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종교활동은 신도들이 종교시설에 운집하여 각종 의례 및 의식에 참여하고, 성직자의 메시지를 전달받는 대면적 접촉이 오랫동안 일상화되고 지속되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종교적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밀접 접촉은 전염병 확산의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대규모의 대중이 모여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종교활동은 여러 가지 양태로 구성되어 있다. 법회, 예배, 미사 등과 같이 정기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상 활동,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 음악회 전시회 등과 같은 문화 활동, 각종 기념일 봉행과 같은 특별활동, 대사회적 봉사활동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에서는 49재, 천도재, 영산재, 수륙재 등과 같은 재의식이 있고, 아침저녁으로 봉행 되는 조석예불 등이 있는데 이는 다른 종교 조직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종교활동이다.

또한 종교활동은 기존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새 신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개하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신도들은 일상적인 종교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신도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심이 고양되고 정체성과 소속감이 확립될때 까지는 양육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각 종교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적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첫째, 개인형 종교활동으로 기존의 집단적 종교활동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형태이다. 전통적인 실행활동은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별 성소

에 모여서 성직자의 기도 인도에 맞추어 참여하거나 법회의 설법, 예배의 설교, 미사의 강론 등을 대면적 접촉 속에서 참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대중이 모이면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밀접접촉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각 종교에서는 대면적 접촉을 자제하면서 유튜브, 홈페이지, 밴드 라이브톡 등과 같은 SNS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소규모 집단의 모임 중심으로 세분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성소 현장에서의 모임이 수용인원의 20%로 제한되면서 대규모 조직을 세분화하여 모이게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⁷⁾ 종교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확산 되면서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종교집회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소규모 모임만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렇지만 소규모 모임에서도 비말이 많이 발생 되는 활동이 있을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렇지만 종교조직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접촉만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소규모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매체를 활용하여 대면접촉을 대체하는 완전 비대면 종교활동이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 기독교에서는 매주 진행되는 정기예배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결합하여 병행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렇지만 새 신도 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은 줌(Zoom)을 활용하거나 방송으로 대체하는 비대면 교육으로 완전히 전환한 사례들도 있다. 규모가 큰 종교단체에서는 직접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단체는 카톡, 네이버 밴드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대한불교조계종단을 대표하는 사찰인 조계사는 매일 병행하는 예불과 법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신도들의 참여는 제한되고 있다. 소규모 교육과 지역 법회의 경우도 동참자가 급감하면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계사는 유튜브 등 SNS로 중계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없이 소규모가 참여하는 오프라인 법회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교육 등이 중단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남 지역에 위치한 봉은사의 경우는 신

37) 2020년 12월 교회에서의 집단발병 사례는 신천지예수교 5213명,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1173명, 강서 성석교회 168명, 홍대세교회 163명, 부산 반석교회 48명, 대구 영신교회 47명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방역 대책본부에서는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시아경제』 2020년 12월 15일자 참조.

도교육의 일부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 실행활동이나 법회에서 SNS를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비대면 시대의 신도조직 활성화 방안

1. 사찰의 포교환경 변화

사찰의 신도조직을 비대면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성이 따르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의 신도조직은 대면적 접촉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신도들 사이에 결속을 강화해 왔기 때문이다. 대면적 접촉이 없으면 신도들의 실행활동은 위축되고, 익명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신도들이 종교조직의 일원으로서 소속감과 충성심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일부 비밀결사 조직체와 같이 운영되는 종교단체에서는 점조직 형태로 비대면이나 익명성을 보장하는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일반적으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도조직은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고려하여 새로운 조직체계, 포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직접적, 대면적 접촉을 통해 형성되고 운영되는 신도조직은 지역사회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에서의 포교활동과 연계되어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웃사촌처럼, 그리고 형제와 자매처럼 만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사찰을 비롯한 종교시설들은 도심의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하게 되고 대면적 접촉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접촉이 어려워지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면서 빠르게 비대면 접촉을 통한 실행활동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여기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 되면서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젊은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은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갤럽의 종교인구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대의 종교인구는

2004년 45%에서 2014년 31%로 감소하였고, 30대는 49%에서 38%로 감소하였다.³⁸⁾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약 10여 년 만에 20~30대의 종교인구가 10% 포인트 이상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인구 중에서 종교가 없는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 이 세대들이 계속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종교인구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종교단체들은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비대면 시대의 종교성은 점차 약화 되고, 종교단체에 대한 충성도, 결집도도 약화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으면 종교단체를 쇠락의 길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하다.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종교가 소멸하는 것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종교사에서 잘 나타나 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종교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수메르와 바빌론 신앙, 환생과 윤회를 강조했던 오르페우스 신앙, 선신과 악신이 대립으로 세계종교에 영향을 미친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에서 구세주 신앙을 전파한 마니교, 태양신 미트라를 믿었던 미트라교, 켈트족의 드루이트교, 몽골초원의 기독교였던 네스토리우스교, 만주족의 샤먼교 등 많은 종교들이 소멸해왔다.

이러한 종교의 소멸에는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교리체계의 부재, 합리적이고 이성적 신행체계 결여, 성직자 및 핵심 신도의 붕괴, 외부적 탄압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성직자, 핵심 신도 등이 소멸하면 종교는 존립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앞의 종교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교가 2700여년 동안 존립하면서 세계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수행자와 교단을 이끌어 가는 소임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신도가 지속적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핵심 신도의 조직화, 체계화 및 적극적인 포교활동은 사찰의 존립과 지속적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2. 비대면 사이버 신도조직화 방안

비대면 시대에 정보 매체를 활용하는데 익숙한 세대들을 위해서는 먼저 포교 기반을 구축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비대면 포교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38)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2015, p.17. <표27-1>

첫째,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불교공동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비대면 불교공동체 구축 사례는 이미 선행 사례들이 있다. 최근 정토회에서는 각 지역에서 운영하던 정토행당을 폐쇄하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까닭도 있지만 동시에 정보 매체를 통한 사이버 공동체 운영으로도 충분한 포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토회는 정토풍교대학과 수련원 시설을 활용하여 30년 만일결사 운동을 전개하면서 3년마다 천일결사 입재식을 봉행하고 있다. 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매일 아침 수행문을 읽고 108배와 명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매일 1,000원 이상 나눔을 실천하면서 바른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 맑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한다.³⁹⁾ 정토회에는 교사, 의료인, 영화예술인 등 직능별 모임이 있고 청년 대학생 등 계층 모임도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 지부 모임과 거점 사찰들이 있다. 현재 온라인 정토풍교대학을 운영 중이며, 유튜브를 통해서 법륜스님의 다양한 즉문즉설을 소개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정토회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구축에 가장 빠르게 앞장서고 있다.

소규모 비대면 불교공동체는 원빈스님이 운영하는 행복문화 연구소가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송덕사를 거점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25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소통공간은 한줄 쓰기, 하루 한번 행복경과 왕생계를 독송하는 코너 등이 있으며 필사, 독서, 전법 요가, 간경 모임, 경전 공부방 등의 공부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원빈스님 스님이 이끌고 있는 행복문화 연구소는 독서모임을 중심으로 경전공부와 신행활동, 사회적 실천과 봉사 등을 연계시키면서 전국적으로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사이버 공동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⁴⁰⁾

공동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도법사, 홈페이지 운영 관리자, 영상 제작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내부에서 전문 인력을 모아서 구축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는 전문 인력 확보와 설비 운영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 사찰에서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러나 블로그, 카페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39) 정토회 홈페이지(<https://www.jungto.org>) 자료 참조.

40) 원빈스님의 다음 카페(<https://cafe.daum.net/everyday1bean>) 자료 참조.

경우 큰 비용 부담 없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으나 홍보 영역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세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적극적으로 비대면 사이버 포교사를 발굴 육성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해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SNS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이버 공간을 만들었을 경우 이를 소개하고, 콘텐츠 구성에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이버 포교사가 필요하다.

사이버 포교사는 불교공부와 명상 실참(實參)을 통해서 불교적 소양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인력을 말한다. 사이버 포교사는 그 자체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업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 포교활동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⁴¹⁾

사이버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사이버 불교대학 개설이 필요하다. 사이버로 운영되는 불교대학 중에는 덕산 이한상 거사의 유지를 받들어 운영되는 삼보 사이버 불교대학이 있다. 이 불교대학은 입문 과정, 포교사과정, 법사과정 등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법사 과정은 범회, 포교원 등에서 전법 활동을 하거나 법사 자격은 있으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과정이다.⁴²⁾

사이버 불교대학은 온라인으로 강의만 하고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시스템과 온라인 강의와 포교활동을 함께 전개하는 시스템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포교사도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는 대면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활동과 접촉 온라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즉, 인터넷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사이버상에서 최대한 포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만 사이버 포교를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셋째, 비대면 신도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상에서 실행활동 지도, 비대면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 개발, 사회적 실천 활동 등의 체계들을 갖추어야 한다. 사이버상으로 운영되는 실행공동체의 경우에도 사찰에서 운

41) 기독교에서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자비량 선교사 혹은 Tent Maker 라고 부른다.

42) 삼보범회 홈페이지(<http://cyber.sambobuddha.org/edu>)의 자료 참조.

영하는 신행 프로그램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보시와 봉사활동이 함께 이루어질 때 사이버 공동체의 신도조직화가 가능할 수 있다.

사이버상으로 이루어지는 신행활동의 가장 모범적 사례가 앞서 사례로 언급한 정토회와 행복문화 연구소라고 할 수 있다. 정토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일 신행 활동 방법을 상세하게 지도하고 있으며, 행복문화 연구소의 경우에도 다양한 신행활동을 이끌어 주고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공통점은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서 수련회 등에 동참할 수 있는 사찰이나 부속 시설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신도조직화는 완전한 온라인만으로 운영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면 ‘대중의 공덕’ 즉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온라인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가입 탈퇴가 자유롭고, 신행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기 때문에 냉담자가 발생하기 쉽다.

넷째, 비대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내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 소규모 공동체에서 역할을 부여하면 더 보람 있게 봉사하면서 참여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사회적으로 봉사와 후원이 일상화되고 있고,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할이 주어지면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조직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공부 모임, 독서회, 신행결사 등의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SNS 등을 비롯한 사이버상에서 진행하고, 조직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대면적으로 신도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이버 포교사의 경우에도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시행하는 신도품계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조계종단에서는 신도들의 교육과 신행활동 정도에 따라서 발심, 행도, 부동, 선혜 등 4단계로 품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이버 포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사찰에서는 온라인 신도조직을 결성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특히 산중에 있으면서 전문 인력이 없는 전통사찰이나 고령층 신도가 많은 사찰들은 사이버 포교 활동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유

튜브 제작, 카톡이나 네이버 밴드, 그리고 카페나 블로그 등을 활용할 경우 다소 오프라인 중심의 신행활동을 다소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지스님이 카톡이나 밴드를 개설하고 그곳에 신도들을 초청하여 신행활동을 지도하고 법문을 전달할 수 있다.

현재 불교계는 월정사, 해인사, 불국사 등과 같이 본사급 사찰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하고 많은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참여하여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례도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찰들은 카톡이나 밴드를 이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만을 고집하고, 신행활동 체계를 변화시키지 못할 경우 현재의 20~30대가 50~60대가 되는 20여년이 지나면 포교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온라인상으로 운영되는 사이버 불교공동체를 만들고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에 종단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V. 결어

불교에서 신도교육과 조직은 부처님 재세 시에도 유사한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부처님은 매일 탁발을 나서거나 공양을 받으면 설법을 통해 중생심에서 벗어나도록 교화하였다. 직제자들도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며 전법교화에 앞장섰다. 이때 귀의한 장자들 중에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들은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불교 교단 초기에 귀의한 장자들은 500여 명이나 되는 상인들을 거느린 무역상들도 있었다. 이러한 장자들은 조직적으로 이동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빠르게 전파하면서 교단을 외호했다.⁴³⁾

이렇게 자발적으로 승가를 외호하는 재가불자 조직의 전통은 남방불교권, 대승불교권, 금강승불교권 등으로 확산 되었다. 특히 대승불교권에서는 보(寶), 결사(結社) 등과 같은 다양한 조직체가 만들어지면서 조직포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 수대의 신행(信行: 540~594)이 창도했던 삼계교(三階教)는 말법사상을

43) 초기불교에 등장하는 쫓따 장자나 핫따까 장자 등도 많은 장자와 함께 부처님을 친견하고 귀의한 후 교단을 외호하는 재가불자 조직을 이끌었다.

바탕으로 민중불교로 확산 되었다. 불교조직은 역사적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종단조직은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현재는 한국불교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산하의 불자조직들은 종단의 종헌종법에 의해 형성된 제도화된 신도조직과 자율적으로 형성된 신도조직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그렇지만 신도조직은 장기간 영속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구성원들이 유입되지 못하면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신도조직도와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종교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불교계는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면 접촉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개발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사이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포교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포교활동을 하려면 먼저 환경의 변화와 현실의 위기를 감지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비대면 포교활동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한 불교계에서는 대안 모색이 쉽지 않다. 전문 인력, 재정, 콘텐츠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계는 다른 종교단체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사찰에서 사이버 전담 포교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통해서 포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처음부터 홈페이지 개설, 유튜브 영상 제작 등은 쉽지 않은 일이나 시중에서 활용되고 있는 SNS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큰 비용 부담 없이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다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고 신도들이나 일반인들을 동참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찰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종료된다고 해도 종교계가 전통적인 대면적 신행활동 상황으로 완전히 되돌아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청년층의 종교성이 급격히 약화 되고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존의

방식으로 포교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젊은 세대들을 책임질 수 있는 젊은 승가의 발굴과 동시에 사이버상에서 온라인 비대면 포교를 전담할 핵심 불자들을 양성하고 조직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단과 각 사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鎌田茂雄 著, 鄭舜日 譯, 『中國佛敎史』, 경서원, 1989.
- 고명석, 「신도교육과 신도조직 관리의 효율적 방안」, 『禪文化研究』 제7집, 한국 불교선리연구원, 2009
- 김응철, 「寺刹 信徒의 組織化 方案 研究」, 중앙승가대학교 『論文集』 8, 1999.
- 김응철, 「세계적인 불교 자원봉사 신도조직 대만 자제공덕회」, 『불교와 문화』 44호, 2022.
- 대한불교조계종 신도법, 『종단법령집』,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4.
- 박용규, 「직장·직능 신행단체의 현황과 과제」, 『불교평론』 제13호, 2008.
- 박인석, 「대만 사찰의 신도조직체계와 재가자의 위상과 역할」, 『대만불교의 5가지 성공코드』, 불광출판사, 2012.
- 불전간행회 편, 박용길 옮김, 『유마경』, 민족사, 2013.
- 불전간행회 편, 전해주·김호성 역, 『승만경·원각경』, 민족사, 2013.
- 에띠엔 아모프 지음, 호진 옮김, 『인도불교사1』, 시공사, 1988.
- 에릭 쥐르허 저, 최연식 역, 『불교의 중국 정복』, 시아이알, 2010.
- 窪徳忠·西順藏 엮음, 조성은 옮김, 『중국불교사』, 한울 아카데미, 1996.
- 유발 하라리 저, 김명주 역, 『호모 테우스』, 김영사, 2017.
- 이운허 옮김, 『묘법연화경』, 동국역경원, 2015.
- 이창익,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신: 종교, 인공지능, 포스트유머니즘」, 『종교문화비평』 31
- 일 아, 『아소까』, 민족사, 2009.
- 전재성 역주, 『양긱따라니까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18.
-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2015.
- Klaus Schwab,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York, Crown Business, 2017.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1.02.1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3.21.
- 대관음사홈페이지(www.tvbuddha.kr)
- 봉은사홈페이지(www.bongeunsa.org)
- 불교자제종 자제기금회 홈페이지(<https://www.tzuchi.or.kr>)
- 삼보법회 홈페이지(<http://cyber.sambobuddha.org/edu>)
- 원빈스님의 다음 카페(<https://cafe.daum.net/everyday1bean>)
- 정토회 홈페이지(<https://www.jungto.org>)
- 조계사홈페이지(www.jogyesa.kr)
- 한마음선원홈페이지(www.hanmaum.org)

Abstract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Cyber-Lay Organization in Response to the Age of Untact

Cho, Jin-young(Myo-kwang)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unghwasa)

Modern society is undergoing a revolution in its social structure due to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robots, human intelligence (AI), and cognitive science. This phenomenon is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top of that, non-face-to-face contact is expanding as the covid-19 pandemic occurs. This phenomenon has a great impact on the religious community as well.

Buddhism lacks the ability to respond to new changes due to the aging of believers and the maintenance of agricultural traditions. Therefore, each temple must overcome the crisis of the non-face-to-face era by developing cyber missionary methods. In order for cyber mission to be activated onlin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nline mission infrastructure. And the fostering of cyber missionaries who can take charge of this should be preceded. And Buddhism should spread the new ways of doing things at home in response to non-face-to-face dailyization.

Some Buddhist organizations run Buddhist communities online. However, the vast majority of inspections are not responding properly due to lack of manpower. Cyber missionary activities are essential for Buddhism to mission to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Buddhism should provide a way for many people to benefit, develop, and be happy through online missionary methods.

Key words

Buddhism, Covid19, Pandemic, Temple, Syber, Lay organization

논문투고일 : '21. 10. 25. 심사완료일 : '21. 11. 24. 게재확정일 : '21. 11. 24.